2021 09
통권 제13호

한국통일협회보

Unification Council of Korea

제13호

韓國統一協會報

Unification Council of Korea

Contents

04 협회 소식

06 한반도국제평화포럼

27 회원 논단

36 회원 경조사

38 동호회 활동

39 UCOK 마당

55 건강 코너

협회소식

◈ 2021 한반도 국제평화포럼 참가

우리 협회는 8.31부터 9.2까지 통일부가 주최하는 "2021 한반도 국제평화포럼"의 참여기관으로 선정되었다. "새로운 남북관계 비전과 한반도 평화, 경제, 생명공동체"라는 대주제로 진행되는 금번 포럼에서 우리 협회는 "남북기본합의서 30주년 평가와 의미"라는 소주제로 한 세션을 담당하였다. 한반도 국제평화포럼은 통일부가 주최하는 한반도 평화와 통일에 관한 1.5트랙 다자 국제포럼으로서, 2010년 창설된 이래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를 주제로 매년 전 세계 20여개 국가의 북한 및 한반도 문제에 관한 연구자들과 시민사회 활동가 및 정부관계자들이 함께 참여하는 공론의 장으로서 역할을 해오고 있다. 이번 포럼 참가를 통해 우리 협회 회원들이 가지고 있는 다양하고 전문적인 역량과 경험들이 충분히 발휘됨으로써 포럼의 성과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금번 포럼의 참가자는 세션 좌장에 김형기 부회장, 발표에 박광호 한라대 교수, 임병철 남북하나재단 상근이사, 토론에 유종열 운영위원(중앙공무원교육원 객원교수), 김웅희 운영위원, 이무일 운영위원(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 상임감사) 이 수고하였다.

◈ 가칭 “외교통일협회” 창립 준비

우리 협회는 8.13(금), 8.20(금), 8.26(목) 3회에 걸쳐 준비회의를 갖고 가칭 통일외교협회 창립을 추진하고 있다.

◈ 한방침구교실 운영

우리 협회는 지난 6.1부터 협회 사무실에 한방침구교실을 개설하여 지금까지 많은 회원님들이 이용하고 있다. 그동안 정세현 회장을 비롯한 여러 회원들이 침뜸을 통하여 건강에 큰 도움을 받고 있다. 서상덕 이사를 비롯한 한국정통침구학회 회원들이 자원해서 봉사하는 한방침구교실은 매주 화요일 오전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운영하며 이용은 무료이다. 회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이용 바란다.

◈ 제2차 한백포럼 및 제4차 UCOK학술회의 개최

우리 협회는 10월중 제2차 한백포럼과 제4차 UCOK학술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제2차 한백포럼의 주제는 "남북경협 어제, 오늘 그리고 내일"로서 김중태 부회장과 이강우 운영위원이 각각 발제할 예정이다. 제1차 한백포럼은 6.15 “2000년 남북정상회담의 평가의 의미”라는 주제로 성황리에 개최된바 있다. 한백포럼은 매월 남북 및 통일관계 주요현안들에 대한 회원들간의 심도있는 토론을 통해서 회원들의 재직시 경험과 지식을 공유하고 회원 상호간의 유대강화를 위한 장으로서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2차 한백포럼과 병행하여 제4차 UCOK학술회의도 개최할 예정이다. UCOK학술회의는 2018 제1차 학술회의 회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 드린다.

한반도국제평화포럼(KGFP)

남북기본합의서, 오늘의 함의

– 서명 30주년에 부쳐 –

박 광 호
(한라대 교수)

남북기본합의서

'통일을 향한 이정표'

서 문

⑩쌍방 사이의 관계가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관계라는 것을 인정

2. 남북불가침

⑩상호 무력 불사용

⑩분쟁을 대화와 협상으로 해결

⑩경계선은 정전협정상 군사분계선과 지금까지 쌍방이 관할하여 온 구역으로

1. 남북화해

⑩상대방의 체제를 인정하고 존중

⑩상대방의 내부문제 불간섭

⑩현 정전상태를 평화상태로 전환, 그때까지 현 군사정전협정 준수

3. 남북교류·협력

⑩민족 내부 교류로서 경제교류와 협력

⑩사회문화분야 교류협력

⑩자유로운 왕래 접촉

⑩이산가족의 서신거래, 왕래 상봉

⑩철도도로 연결, 우편 통신 교류

합의서 채택과 남북의 내부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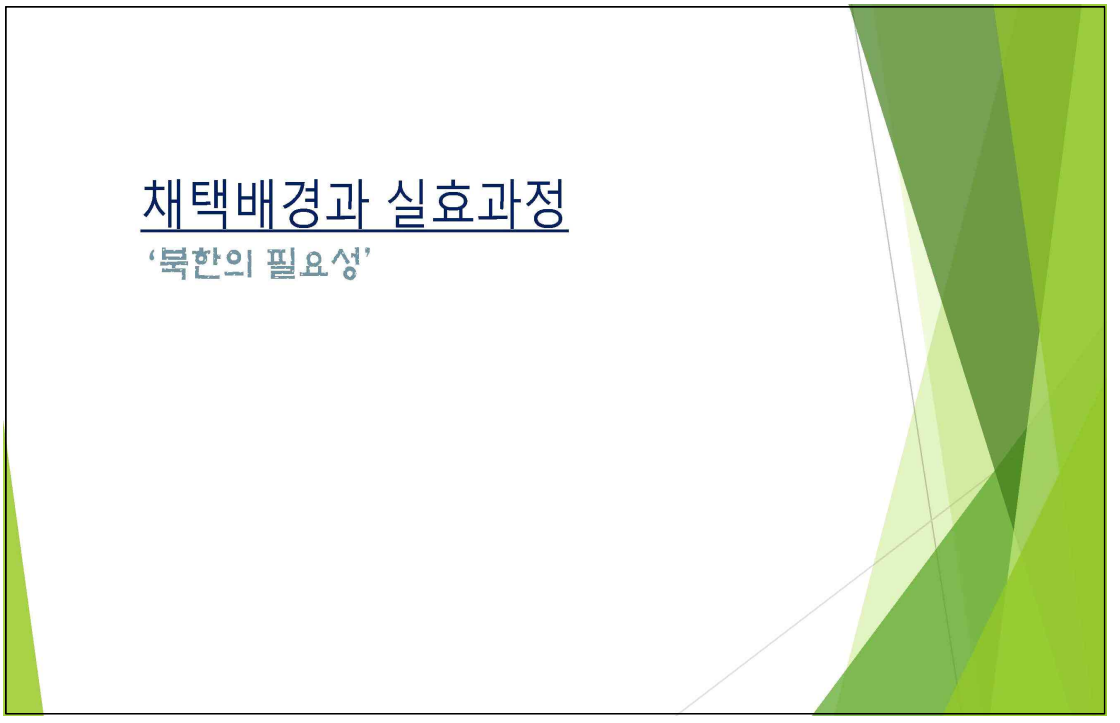
- 제5차 남북고위급회담에서 채택('91.12.13, 서울), 제6차 회담('92.2.19, 평양)에서 발효
  - 남북의 총리가 사인한 첫 합의문
- 남한측
  - 1992.2.17 대통령(노태우) 재가를 거쳐 국무총리 및 전 국무위원 부서
  - ❖ 합의서의 법적성격과 국회동의 여부에 대한 논란 존재
- 북한측;
  - 노동당 중앙위 제6기 제19차 전원회의(1991.12.24)에서 연형묵 총리가 보고
  - 중앙인민위원회와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연합회의에서(1991.12.26) 승인
  - 김일성 주석 비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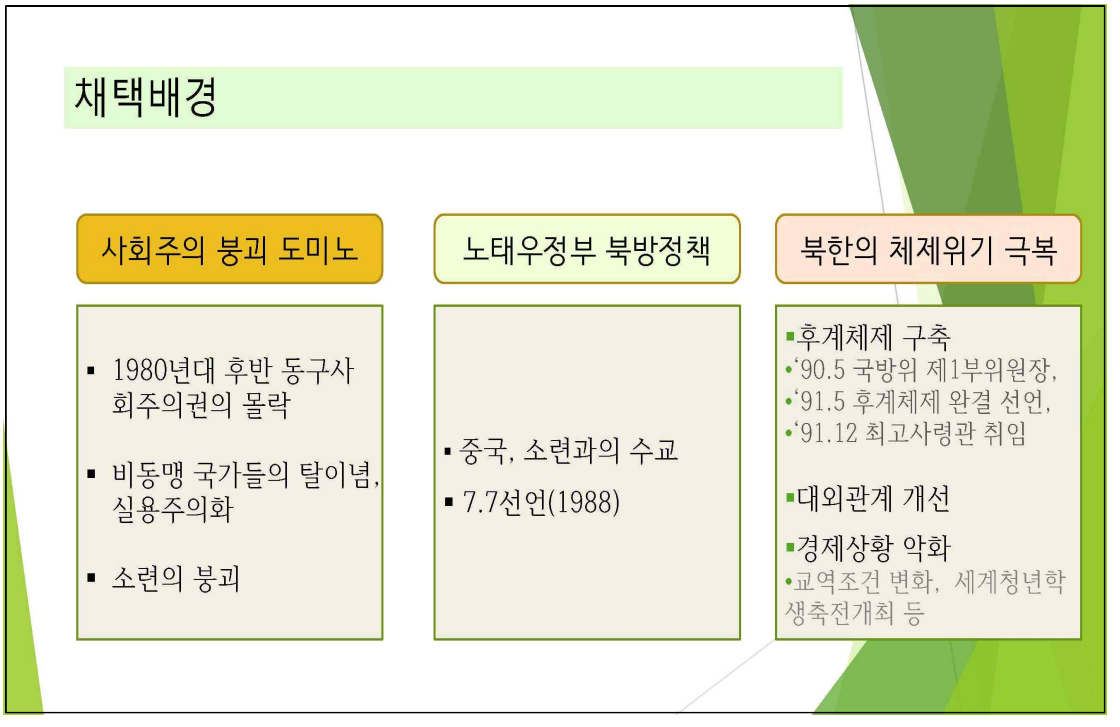
합의서 채택에 대한 남북의 반응

- 노태우 대통령
  - "남과 북은 신뢰를 바탕으로 화해와 불가침 교류협력을 실천해 나아가야 할 것이다"('92.2.19 회견)
- 김일성 주석
  - "<합의서>가 채택된 것은 조국통일 3대원칙을 관철하기 위한 전민족적인 투쟁과정에 이룩된 커다란 승리이며, 조국통일을 실현하는 길에서 새로운 리정표를 마련한 력사적 사변으로 된다"('92신년사)
  - "매우 중요한 합의서로 우리민족이 다 공동으로 기뻐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92.2.20 금수산의사당 인터뷰)

한반도의 비핵화에 관한 공동성명

- 내 용
  1. 남과 북은 핵무기의 시험, 제조, 생산, 접수, 보유, 저장, 배비, 상용을 하지 아니한다.
  2. 남과 북은 핵에너지를 오직 평화적 목적에만 이용한다.
  3. 남과 북은 핵재처리시설과 우라늄 농축시설을 보유하지 아니한다.
- 채 택
  - 핵문제 협의를 위한 고위급회담 3차 대표접촉('91.12.31, 판문점)에서 타결, 가서명
  - 쌍방 총리가 서명하여 상호 최종 교환('92.1.21)
  - 남 국무회의 의결('92.1.23), 북 중앙인민위/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연합회의 승인('92.2.5)
  - 제6차 남북고위급회담('92.2.19, 평양)에서 발효


채택배경과 실효과정
'북한의 필요성'


채택배경
사회주의 붕괴 도미노
▪ 1980년대 후반 동구사회주의권의 몰락
▪ 비동맹 국가들의 탈이념, 실용주의화
▪ 소련의 붕괴
노태우정부 북방정책
▪ 중국, 소련과의 수교
▪ 7.7선언(1988)
북한의 체제위기 극복
▪후계체제 구축
•'90.5 국방위 제1부위원장,
•'91.5 후계체제 완결 선언,
•'91.12 최고사령관 취임
▪대외관계 개선
▪경제상황 악화
•교역조건 변화, 세계청년학생축전개최 등

채택과정

◆ 준 비

- '88.11 북, '고위급정치군사회담'제의
  '88.12 남, 총리를 수석대표로 하는 '남북고위당국자회의' 제의
  '89.01 북, '고위급정치군사회담' 틀 내 예비회담 개최 동의
- '89.2.8~'90.7.26 8차례 예비회담, 2차례 실무대표접촉- 총리 수석대표, 의제 등 합의

◆ 회 담

- '90.9~'90.12, 1~3차 남북고위급회담- 북 정치군사, 불가침 우선 / 남 합의서, 교류협력 우선 입장(이후 한미합동훈련, 소련 쿠데타로 중단)
- '91.4, 제4차 회담에서 북측 입장 전환, 합의서 명칭과 내용 합의 → 제5차 회담에서 채택
- 이후 남북은 3차례 대표접촉을 갖고 '90.12.31 비핵화공동선언 채택

실효과정

'92.10.27 정부 정당 단체 연합회의, 당국간회담 중지 표명

'92.11.3 공동위원회 위원장 연합성명, 공동위 불참 발표

'93.1.29 고위급회담 대표단 성명, 대화재개 의사 없음을 공표

'92.10 한미국방장관회담, '93 팀스피리트 재개 결정, '93.1.29 팀스피리트 실시 공식 발표

2018년의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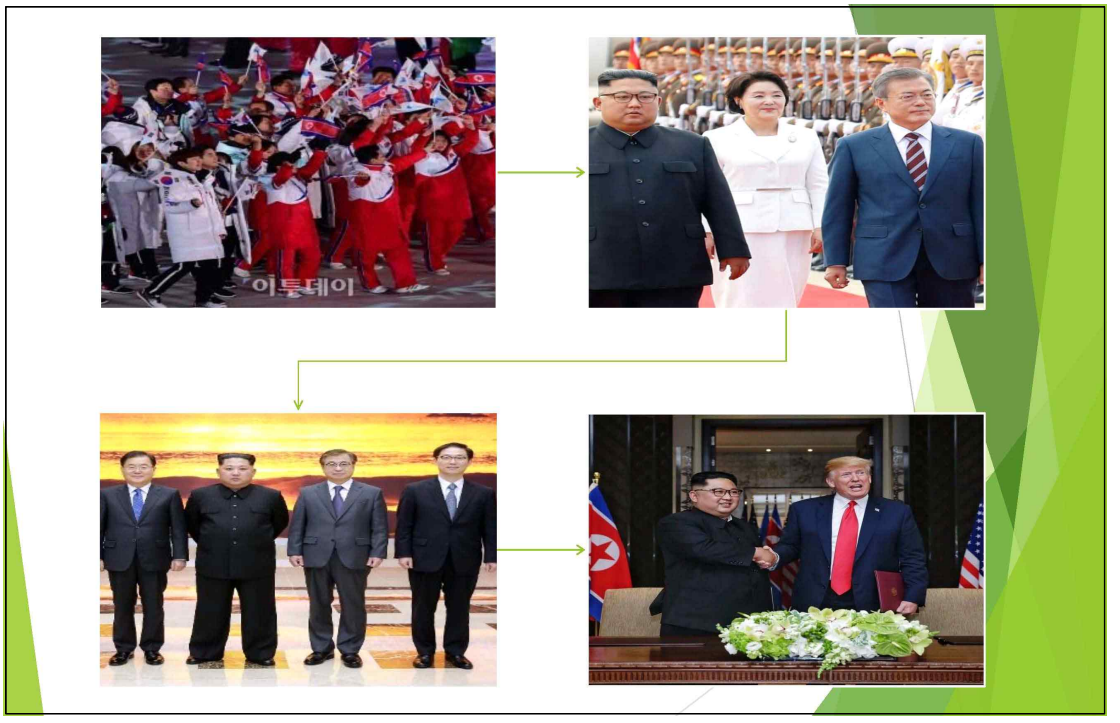
'dé·jà vu?'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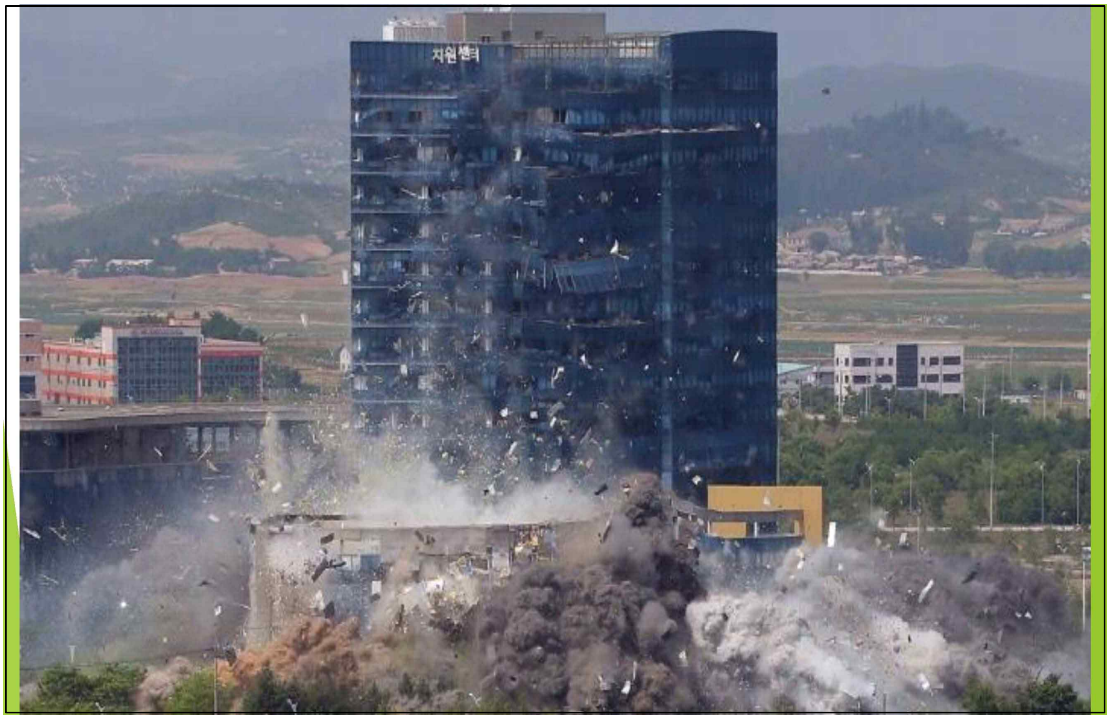
2018년 북한의 태도 변화

1.1 김정은 위원장 신년사

"남조선에서 머지않아 열리는 겨울철올림픽경기대회에 대해 말한다면 그것은 민족의 위상을 과시하는 좋은 계기로 될 것이며 우리는 대회가 성과적으로 개최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러한 견지에서 우리는 대표단파견을 포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용의가 있으며 이를 위해 북남 당국이 시급히 만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한 피줄을 나눈 겨레로서 동족의 경사를 같이 기뻐하고 서로 도와주는 것은 응당한 일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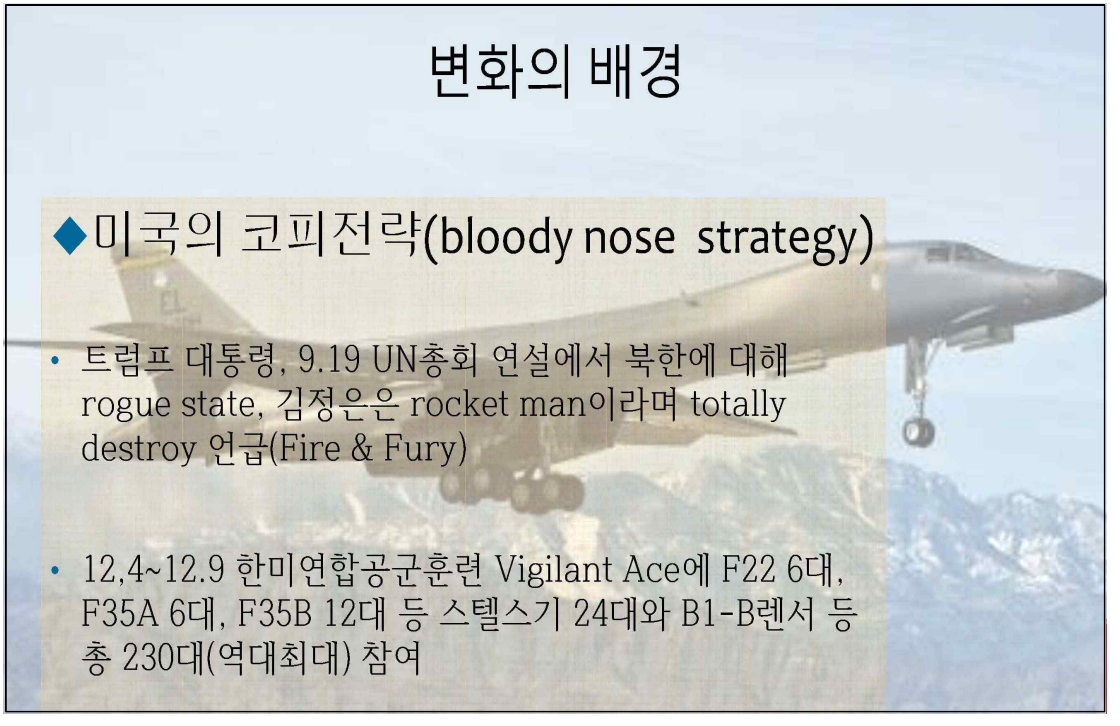

이투데이


자원센터

변화의 배경

대북제재 → 트럼프의 군사 강압 → 문 정부의 대북 태도

변화의 배경



◆미국의 코피전략(bloody nose strategy)

- 트럼프 대통령, 9.19 UN총회 연설에서 북한에 대해 rogue state, 김정은은 rocket man이라며 totally destroy 언급(Fire & Fury)
- 12,4~12.9 한미연합공군훈련 Vigilant Ace에 F22 6대, F35A 6대, F35B 12대 등 스텔스기 24대와 B1-B렌서 등 총 230대(역대최대) 참여

변화의 배경

◆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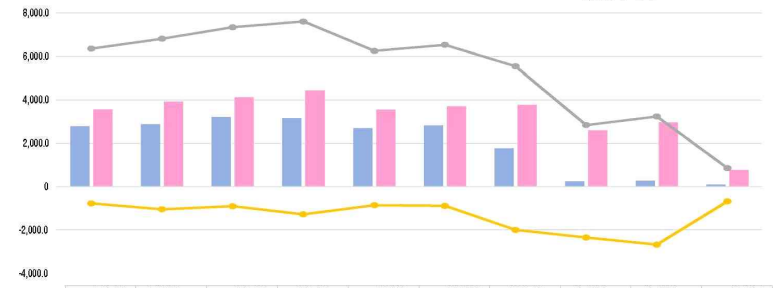
- '17.5.10 취임. 6.15 축사 - 북한이 핵과 미사일 추가 도발을 중단한다면 북한과 조건없이 대화에 나설 수 있음을 분명히 밝힙니다.

- 7.6 베를린 구상 발표 - 평창동계올림픽 북한 참여 초청

결의안	계기	주요내용
2270호 ('16.3.2)	4차핵실험 ('16.1.6.)	o석탄·철·철광 수출제한(민생용제외), 금,희토류 등 광물수출금지 및 항공유 판매·공급금지
2321호 ('16.11.30)	5차핵실험 ('16.9.9)	o석탄수출 상한제,은,동,아연,니켈조형물금수
2371호 ('17.8.5)	장거리탄도미사일('17.7.4,7.28)	o석탄·철·철광석·해산물·납·납광석전면금수(원산지무관) o북한 해외노동자수 동결(제재위승인시예외) o신규 북한과의 합작·합영사업금지(제재위승인시예외)
2375호 ('17.9.11)	6차핵실험 ('17.9.3)	o북한의 섬유금수(원산지무관,유예기간90일) o북한 해외노동자 신규노동허가 금지 o북한과의 합작·합영사업금지(120일내폐쇄) o△원유공급량 현수준 동결△정제유 공급량 감축(연200만배럴)
2397호 ('17.12.22)	장거리 탄도미사일 ('17.11.29)	o원유공급 연400만배럴, 정제유공급 연50만배럴로제한 o식료품,농산품,기계류,전기기기,토석류,목재류,선박 수출금지 o조업권 거래금지포함 o산업용 기계류,운송수단,철강 및 여타 금속류의 대북수출금지 o북한 해외노동자 24개월내 송환

북한의 연도별 수출입 추이

(단위 : $ 백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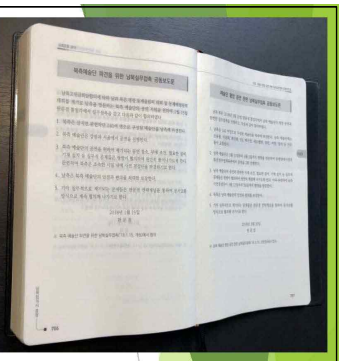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수출	2,789.4	2,880.1	3,218.4	3,164.7	2,696.5	2,820.9	1,771.9	242.7	277.8	89.3
수입	3,567.7	3,931.2	4,126.4	4,446.2	3,555.3	3,710.8	3,778.1	2,600.8	2,957.2	773.7
수출입계	6,357.1	6,811.3	7,344.8	7,610.9	6,251.8	6,531.7	5,549.9	2,843.5	3,244.9	863.0
무역수지	-778.4	-1,051.1	-908.0	-1,281.6	-858.7	-889.9	-2,006.2	-2,358.1	-2,689.4	-684.4

자료원 : KOTRA

오늘의 의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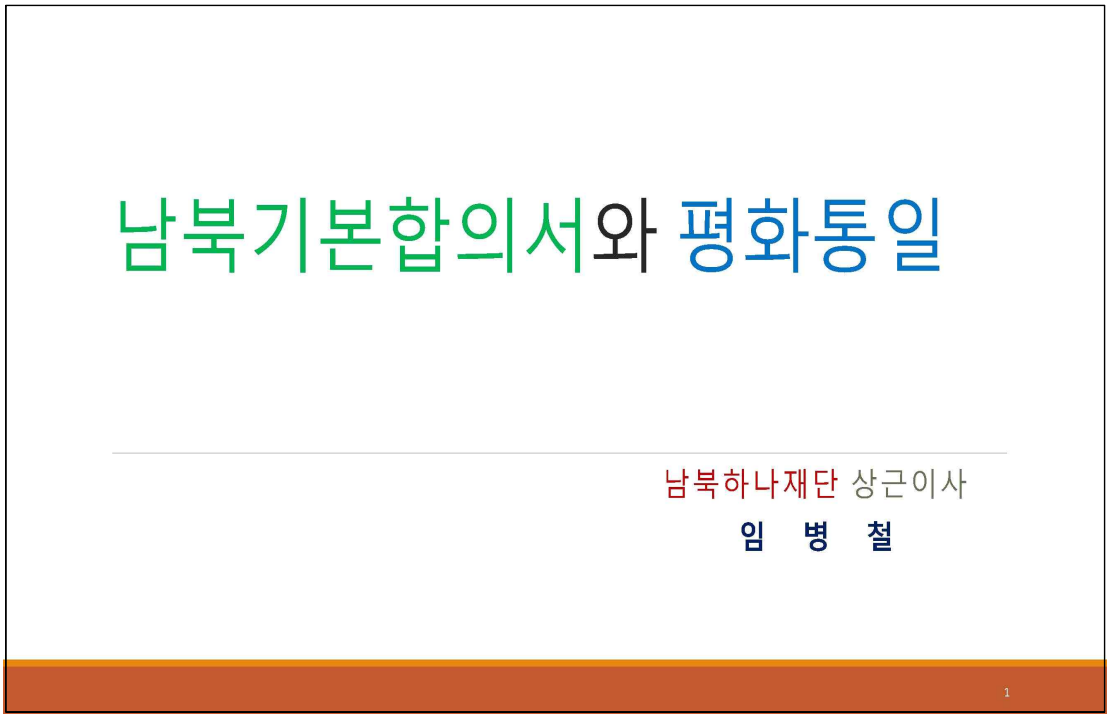
'북한의 필요성'

- ✓ 남북간 합의서 가운데 지켜지고 있는 것은?
- ✓ 어느 분야의 합의가 생명력이 긴가?
- ✓ 합의 이행을 담보할 수 있는 방안은?
- ✓ 합의 없이 남북관계를 견인해 나갈 분야는?



남북기본합의서와 평화통일

임 병 철
(남북하나재단 상근이사)



우리에게 남북기본합의서란?

- 화해·협력관계와 평화통일 지향 -

2

기본합의서 배경

- 남과 북이 분단 역사상 처음으로 서로 상대방을 공식으로 인정
  - 공식국가 명칭을 합의문서에 표기하고 양측 총리의 이름으로 서명, 채택
- 탈냉전 영향과 함께, 주류인 보수정부의 주도로 내부갈등 없이 추진 가능
  - 점진적 북한 변화론에 입각한 대북시각(포용정책)을 견지
  - 북핵문제를 남북관계 개선과 병행 해결 전략 채택

3

기본합의서 의의

- 남북한이 상호실체 인정, 남북관계 개선과 평화공존을 기본적인 방향으로 명문화
  - 탈냉전의 시대를 맞아 새로운 남북관계의 발전방향을 모색하여 정립한 강령적 성격
  - 대립과 반목의 남북관계를 청산, 화해와 협력의 남북관계를 개막하기 위한 실천강령
- 분단의 현실을 인정하는 한편 통일 지향 의지를 함께 함축
  - 남북최고책임자가 한반도 평화통일 원칙에 관한 합의서에 서명
  - 전문에서 "남북관계를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특수관계" 규정
  - 분단상황은 어디까지나 잠정적이고 과도적인 것, 통일을 지향하는 노력이 민족의 과제임을 명시

4

기본합의서 특징

- 남북화해·불가침 및 교류협력을 위해 양측이 취해야 할 조치를 구체적으로 규정
  - 상대방 체제 인정·존중, 내부문제 불간섭, 무력행사 금지·분쟁의 평화적 해결, 자유왕래·접촉 등 완벽
- 이후 30년간 각종 남북정상 간 합의와 분야별 합의서의 모태
  - 2000년 6.15남북공동선언은 기본합의서의 이행을 위한 실천선언 성격
  - 2007년 10.4선언은 6.15선언을 재확인, 남북관계 확대·발전을 위한 구체적 사업들 제시
  - 2018년 4.27판문점 선언은 기본합의서와 구조·내용 유사

5

남북기본합의서 어떻게 이행되었나?

6

기본합의서 이행 상황

- 기본합의서, 6.15공동선언, 판문점 선언 등 기념비적 합의도 많았지만, 통일의 날은 요원
  - 현재 남북관계 교착상태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남북간 합의 사항 미이행
- 남북관계에서의 가장 큰 걸림돌은 지난 시기동안 고질화 된 상호불신
  - 기본합의서 등의 이행과 중단의 반복으로 상호간에 불신 초래
- 다만 지금까지 다양한 남북간 합의사항의 일부가 실천에 옮겨진 사례 존재
  - 상호 신뢰 축적으로 적대의식 감소와 긴장 완화 경험

7

기본합의서 이행 장애요인

- 북한은 기본합의서와 비핵화공동선언을 무효화, 합의서 이행을 거부
  - 분야별 공동위원회 구성 등 이행체계를 모두 갖추었음에도 불구, 미이행
  - 남북관계 경색, 팀스피릿 훈련 실시 및 1차 핵위기로 북한측의 일방적인 대화 중단 조치
- 남한의 정권 교체에 따른 대북정책의 변경은 합의서 이행 동력 상실 초래

  # 서독과 동독의 사례

  → 1972년에 체결된 동서독 기본조약의 법적 구속력은 집권당이 바뀌어도 존중, 일관된 통일정책 추진 가능
- 국제정세의 변화에 따른 우리의 한반도 문제 해결 주도 여지의 축소

8

기본합의서와 북핵문제

- 북핵문제의 본질
  - 북한 입장 : 핵을 고리로 북미간 정치협상을 실현하고 북미간 평화협정을 체결하는 것
  - 미국 입장 : 미국의 패권을 위협하는 북한의 핵 능력을 제거하는 것

  ☞ 미국의 북핵 제거 노력과 이에 북한은 대미 관계 정상화 추진을 위해 핵문제를 협상카드로 사용, 긴장 고조
- 이후 30여년간 북핵문제는 기본합의서 이행에 큰 영향
  - 1991년부터 본격화된 북핵문제는 이후 현시점까지 한반도 문제를 좌우하는 핵심주제
  - 1990년대 초반의 '비대칭적 탈냉전'은 이후 30여년간 핵문제를 고리로 한반도 평화에 악영향 초래
  - 남북이 관계개선을 모색할 때마다 핵문제로 인해 발생한 북미관계 악화로 한반도 긴장상황 반복

9

남북기본합의서 어떻게 이행해야 하나?

10

기본합의서 이행 중요성

- 기본합의서 이행은 남북한의 기존 협상 방식에 대한 반성으로부터 출발 필요
  - 남북간에 제기 가능한 모든 이슈 총망라, 발효 당시 북한도 이를 높게 평가
  - 남북한이 기본합의서를 토대로 주고 받기 식 협상을 해왔다면 남북관계가 보다 진전 예상
- 기본합의서 이행은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체결을 통해 평화체제 구축에 기여 가능
  - 기본합의서는 남북관계 개선과 평화통일의 장전으로 간주
  - 종전선언이 현재의 정전협정 체제를 무력화 시킬 가능성에 대한 우려 감소
  - 평화체제로의 전환절차를 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 보장장치 확보

11

기본합의서 이행 방안

- 남북간 합의의 신뢰성 제고 및 정권과 무관한 일관된 통일·대북정책 추진
- 기본합의서의에 따른 한반도 평화체제의 구축에 대해 국제법적 공인 확보
  - 남북관계의 특수성에 대해 국제적으로 공인 받을 수 있는 실질적인 법적 조치 필요

  # 남북한은 두개의 독립된 나라가 아니라 통일을 지향하는 특수관계
- 기본합의서 이행 보장을 위한 강력한 제도적 장치 필요
  - 특히 북한이 계속 이행을 안 할 경우 지불해야 할 비용에 대한 인식 필요
  -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것은 현재 유지되고 있는 대북제재와 국제공조

12

기본합의서 이행 방안

- 기본합의서에 대해 법적 효력에 해당하는 조약적 효력 부여
  - 내부적으로 기본합의서 등 기본 합의서에 대한 법적 효력 부여로 지속적인 이행력 확보
  - 향후 남북간 합의서의 체결·비준 과정에서 국회와 국민참여를 법제화
- 앞으로의 남북한 협상과정에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
  - 남북한이 그동안 합의한 것을 하나하나 의제화 하는 전략 필요
  - 북한의 실천의지를 확인하고, 이행을 보장하는 방안을 추구하는 것이 바람직

13

남북기본합의서, 통일에 기여해야!

14

기본합의서와 평화통일

- 통일은 한반도의 분단문제를 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최후의 목표
- 기본합의서는 평화통일을 성취하기 위해 공동의 노력을 경주할 것을 규정
  - 이를 위해 남북이 화해, 교류협력하며 서로 침략하지 않기로 합의
  - ☞ 헌법 4조에 나와있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통일"을 앞당길 수 있는 길
- 기본합의서는 분단 고착이 아니라 통일을 지향하는 평화체제 구축에 기여 가능
  - 합의 이행 과정에서 교류협력이 활성화되면 '남북연합' 단계로의 진입도 가능 예상

15

기본합의서 이행을 위한 주도적 노력

- 북한을 대화·협력의 장으로 유인할 수 있는 주도적·창의적인 방안 지속 강구
- 남한은 한반도 평화의 당사자인만큼 북·미간 중재자 역할을 지속적으로 견지
  - 남북관계와 북미관계가 경색되어 있지만, 우리의 여지를 계속 확대해야 할 필요
  - 굳건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안보는 우리가 주도하면서 국제정세에 융통성 있게 대응
- 특히 통일과 한반도 문제에 대한 주도적 해결 의지를 가진 주체로서 역할 정립
  - 한반도 문제의 국제문제화를 막음으로써 우리 정부의 활동 영역 확대

16

결 론

- 현재 북핵 능력으로 인해 무력통일, 일방적 흡수통일 모두 불가능
  - 북핵문제의 해결과 병행, 화해·협력을 통해 상호번영의 과정을 추구 급선무
  - 이를 통해 마지막으로 평화적인 통일을 이루는 하나의 과정만이 우리에게 이상적
- 현실의 분단에 굴복하지 말고, '통일 지향' 화해·교류협력의 기본합의서 정신 계승·발전
  - 당장 통일 가능성이 낮더라도 바람직한 방향의 통일 지향 의식은 확고히 할 필요
  - 과거 역사 속의 경험으로부터 교훈을 얻고, 나아가야 할 미래상에 대한 통찰력을 겸비
- 기본합의서 정신을 바탕으로 남북간 갈등·적대 및 남남갈등 해소를 위해 역량 집중 필요

17

회원 논단

시대별 남북관계 변천사 : 남북한통일정책 및 대북정책

양 재 성
(이 사)

1. 정권수립에서 1970년대까지 남북한 통일방안

1) 한반도 주변정세와 남북관계

남북의 정치적 분단에 관하여는 정부수립 시기의 선후 문제만을 놓고 그 책임과 정통성의 시비를 잘못 가리는 예가 있다. 그러나 소련의 치밀한 계획과 지원 아래 북한지역에 공산정권이 먼저 수립되었다는 것은 정치적 분단의 전개과정을 잘 입증해 주고 있다.

즉 소련군은 대일 선전포고와 거의 동시에 북한지역에 진입, 1945년 8월 24일에는 평양에 들어오게 된다. 그들은 사전계획에 따라 북한지역에 공산정권을 세우는 작업을 치밀하게 추진하게 된다. 소련 군정 당국은 먼저 8월 27일 조만식을 위원장으로 하는 우익인사 중심의 '건국준비위원회 평안남도지부'를 같은 수의 좌우익 인사로 구성하는 '인민정치위원회'로 강제 개편케 하여 휘하에 예속시켰다. 10월 28일에는 '북조선 5도 행정국'을 정식 발족시킴으로써 공산정권 수립의 의지를 드러내기 시작했다. 소련당국은 또 10월 13일 '조선공산당 북조선분국'을 설치케 하고, 다음날 김일성을 처음 대중 앞에 내세우기도 하였다.

그 후 민족주의 세력과 국내파 공산주의자들을 제거하는 과정을 거쳐, 12월 에는 이 '분국'을 '북조선 공산당'으로 개편, 김일성이 당권을 장악하게 만들었다. 1946년 2월 8일

소련당국은 김일성을 위원장으로 한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를 발족시켜, 공산체제 단독정권의 틀을 마련케 하였다. 소련은 이어 북한의 단독정권 수립을 위한 마지막 요식 절차로서 1947년 11월 소련헌법을 모방한 헌법을 기초하고 1948년 4월 이를 채택케 한 후, 같은 해 9월 9일 공산정권을 정식으로 출범시켰다.

한편 남한지역에서도 미 군정당국은 1946년 2월 그 자문기관으로 '조선민주의원'을 구성한 후 12월에는 이를 '과도입법의원'으로 개편하였다. 남북분단 이후 미국은 당초 한반도 문제의 해결방안으로 1945년 12월의 모스크바 3상회의 결정에 따른 신탁통치안을 제시하였다. 그렇지만 우리의 '과도입법의원'이 1947년 1월 20일 신탁통치 거부결의안을 채택하고 '미.소공동위원회'가 끝내 결렬되자, 신탁통치를 단념하고 한국의 독립 정부 수립을 지원하기로 방침을 바꾸었다,

결국 2월의 유엔 결의에 의해 선거감시 가능지역인 한국내에서만 1948년 5월 10일 총선거가 실시되고, 7월 17일 헌법이 공포된 후 8월 15일 대한민국정부가 수립되었다.

2) 북한의 통일방안

광복 후 6.25전쟁까지 북한의 통일방안은 '민주기지론'에 입각한 무력통일 방안이라고 할 수 있다. 김일성은 이미 1945년 12월 17일 "북조선을 통일된 민주국가를 위한 강력한 민주기지로 전변시킬 것"을 선언했다. 북한은 '민주기지론'에 따라 '반제국주의적 반봉건적 민주개혁'이라는 명분 아래 북한 내의 정치 경제적 체제개혁을 단행하였다. 이러한 '민주개혁'을 토대로 1948년 9월 9일 북한 공산정권이 수립되었다. 김일성은 1960년 8월 14일 8.15 해방 15주년 기념 연설에서 처음으로 연방제를 제의하였다.

3) 남한의 통일방안

이승만 대통령은 1948년 8월 15일 경축사를 통하여 “북한지역의 선거”로 통일하겠다고 하였다. 한국 헌법절차에 따라 선거하여 국회의원 100명을 선출하여 비워 둔 국회 의석을 채워야 한다고 했다. 이것이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래 최초의 남한의 통일방안이다.

한편 북한은 6월 25일 새벽에 선전포고도 없이 전면 남침 도발을 하였다. 1953년 7월 27일 정전협정이 체결될 때까지 3년 동안 전쟁이 지속 된 가운데 한반도는 잿더미로 변한 것이다. 북한의 6・25전쟁 도발을 계기로 이승만 대통령은 대한민국 주권 하에 북한지역에 이르기까지의 통일정부를 세우는 북진통일론을 주장했다.

장면 정부는 제1공화국 정부의 『유엔감시하의 북한지역의 선거』 또는 『북진통일론』 그리고 『유엔 감시 하에 남북 동시선거』 가운데 『유엔감시하의 남북한 총선거』를 통일정책의 기조로 삼았다.

1967년 1월 국회에 보낸 박정희 대통령 연두교서에서는 우리가 우선적으로 이루어야할 것은 경제건설과 민주역량의 배양이라고 하면서 선 건설 후 통일의 기본입장을 다시 강조

하였다.

“공업입국의 조국근대화가 이루어질 1970년대에는 국토통일의 전망이 밝아 올 것이다.” 이러한 입장에서 통일에 대한 국민들의 열망에 부응하고 통일문제에 대한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방안 수립을 위해 1969년 3월 1일 정부 부처의 하나로서 국토통일원이 설립되었다.

2. 1980년대 남북한 통일방안

1) 북한의 통일방안

북한은 1980년 10월 10일 노동당 제6차 대회에서 김일성의 사업총화 보고를 통해 기존의 통일방안과 제안들을 다시 정리한 '고려민주 연방공화국 창립방안'을 제시하였다. 그 내용은 ① 자주적 평화통일을 위한 선결조건 ② 연방제의 구성원칙과 운영원칙 ③ 10대 시정방침으로 나눌 수 있다.

2) 남한의 통일방안

① '민족화합 민주통일방안’

1981년에 출범한 제5공화국 정부는 6월 5일 '남북한당국 최고 책임자 간의 직접회담'을 제의했고 1982년 1월 22일 대통령 국정연설을 통해 '민족화합 민주통일방안'을 제시하였다. 이 방안은 ‘통일은 민족자결의 원칙에 의거하여 겨레 전체의 의사가 골고루 반영되는 민주적 절차와 평화적 방법으로 성취되어야 한다’는 기본원칙에 입각하여 통일헌법의 제정으로부터 남북 총선거를 통한 통일민주공화국 완성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②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

1988년 2월 25일 출범한 제6공화국 정부는 과거와 다른 차원에서 새로운 남북관계의 정립을 위한 통일 노력을 전개하였다. 민족문제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발상의 전환을 촉구하면서 민족자존과 화해를 통한 민족공동체 형성을 위해 다각적 노력을 경주 하였다. 이러한 노력은 1988년 ‘민족자존과 통일번영을 위한 특별선언(7.7선언)’과 1989년 9월 11일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의 모습으로 구체화 되었다.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은 1989년 9월 11일 국회에서 대통령의 특별선언을 통해 발표되었다.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은 '7.7선언'을 계승한 것이며 남북 간에 누적된 불신과 대결 의식, 이질화 현상을 그대로 둔 채 일시에 통일을 이룩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을 전제로 하고 있다.

3. 1990년대 남북한 통일방안과 대북정책

1) 한반도 주변정세와 남북관계

1990년대 세계의 역학구조는 미국. 유럽, 아. 태의 3축으로 형성되고 있었으며 그 위에서 불안한 각축시대가 전개되었다. 한편 유엔은 탈냉전 이후 새로운 국제질서 창출과정에서 국제사회의평화와 복지를 위한 노력으로 그 정통성과 효율성을 새롭게 인정받게 된다. 유엔의 위상 강화는 무엇보다 안보리가 본연의 기능을 발휘하기 시작함으로써 가능해졌다.

사회주의체제의 본질적 변화, 소연방 해체, 세계적 차원의 화해 협력 추세 및 독일 통일 등 세계정세의 급격한 변화는 동북아에서도 탈냉전을 유도하였다. 남북한도 UN에 동시 가입(1991. 9)하고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를 채택. 발효(1992.2.19)시키는 등 남북관계는 일정한 진전을 보인 바 있다.

2) 북한의 통일방안

1990년대에 들어오면서 북한의 연방제는 약간의 전술적 변화를 보였다. 소련의 해체와 동구 사회주의권의 붕괴로 외교적 고립과 경제난에 처하자 북한은 체제유지에 불안을 느끼고 남북공존을 모색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북한은 1991년 신년사를 통해 『1민족 1국가 2제도 2정부에 기초한 연방제』를 제기하였다.

북한의 '1민족 1국가 2제도 2정부에 기초한 연방제'는 남북에 서로 다른 두 제도가 존재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실정에서 조국 통일은 누가 누구를 먹거나 누구에게 먹히우지 않는 원칙에서 하나의 민족, 하나의 국가, 두 개 제도, 두 개 정부에 기초한 련방제 방식으로 실현되어야 한다." “하나의 국가, 하나의 제도에 의한 제도 통일론은 분렬을 끊임없이 지속시켜 결국 통일을 하지 말자는 것이기 때문에 제도통일은 후대에게 맡기자”라고 주장 한다.

3) 남한의 통일방안 : 민족공동체 통일방안(한민족공동체 건설을 위한 3단계 통일방안)

①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의 추진배경

1994년 8월 15일 김영삼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서 제시된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은 점진적, 단계적으로 하나의 민족공동체를 건설하는 방향으로 통일을 이루어 나간다는 입장을 재확인하고 있다.

②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의 내용

(i) 통일의 기본철학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의 2대 지주는 ㉠ 통일철학으로서 자유민주주의와 ㉡ 통일의 접근시각으로서 민족공동체의 건설이다.

(ii) 통일과정

㉠ 화해. 협력단계 ㉡ 남북연합단계 ㉢ 1민족 1국가의 통일국가 완성단계

4. 2000년대 남북한 통일방안과 대북정책

1) 한반도 주변 정세와 남북관계

21세기 세계질서의 특징을 한마디로 말하자면 '복합성'이다. 정치·군사 질서는 여전히 미국이 지배하는 단극적 질서가 유지되겠지만 정치·군사 외의 경제, 산업, 금융, 사회, 문화 등에서는 힘의 분포가 미국 지배로부터 이탈하는 변화가 진행되고 있다.

2) 북한의 통일방안

북한은 2000년 '6.15 남북공동선언'에서 '낮은 단계의 연방제'를 제시하였다. '낮은 단계의 연방제'의 정확한 의미 즉 "1민족, 1국가, 2제도, 2정부의 원칙에 기초하되 남북의 현 정부가 정치, 군사, 외교권을 비롯한 현재의 기능과 권한을 그대로 보유한 채 그 위에 민족통일기구를 구성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이 내용은 2000년 12월 15일 자 노동신문을 통해서 다시 확인되었다.

3) 남한의 통일방안과 대북정책

가) 김대중 정부의 통일노력 : 화해협력정책

1998년 2월 김대중 대통령은 취임사를 통해 「국민의 정부」의 대북정책과 관련하여 "남북관계는 화해와 협력 그리고 평화정착에 토대를 두고 발전시켜 나갈 것이다"라고 했다. 탈냉전의 국제정세와 남·북 간 국력 격차 등 분단 상황변화를 고려하여 당면 대북정책을 "화해협력정책"이라 명칭을 정하고 '한반도의 평화정착과 남북관계개선' 방향으로 추진한다고 하였다.

「국민의 정부」의 대북정책은 화해협력정책(일명: 대북포용정책 또는 햇볕정책이라고도 한다)이라 하며 이 대북화해협력정책의 목표는 <평화>와 <화해협력>을 통한 <남북관계개선>으로 설정하였다.

나) 노무현 정부의 통일 노력 : 평화번영정책의 추진

2003년 2월 출범한 노무현 정부(참여정부)는 통일·외교·안보 분야의 전반을 포괄하는 정책으로 "평화번영 정책"을 제시하였다. 한반도의 분단 상황을 고려하고 역대 정부가 이룩해 놓은 통일정책의 성과를 계승·발전시킨 것이다. 참여정부의 평화 번영정책은 한반도 평화를 증진시키고 남북공동번영을 추구함으로써, 평화통일의 기반 조성과 동북아 경제

중심으로의 발전토대를 마련하고자 하는 전략적 구상을 그 개념으로 설정 하였다.

노무현 정부는 ①북한 핵문제 해결(단기) ②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중기) ③동북아 경제중심 추진(중장기)의 세 가지 측면에서 추진방향을 수립하였다.

5. 2010년대 남북한 통일방안

1) 한반도 주변정세

21세기 국제질서는 세계화와 국제경제의 팽창의 결과 신흥부상국, 특히 중국, 인도, 브라질 등의 경제성장에 고취된 신 민족주의가 분출하고 있다. 다양한 민족적 관점의 분출은 정보혁명 덕분에 더욱 확대 재생산되고, 이들의 주장이 커지고 있다는 것은 곧 주요 국제문제에 있어서 갈수록 합의가 어려워짐을 의미한다. 이는 곧 미국이 여전히 초강대국이지만 혼자 힘으로 국제문제를 주도하거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2) 북한의 통일방안 평가

북한의 통일방안은 기본적으로 적화통일전략을 실현하기 위한 전술적 방안에 불과하며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다.

첫째, 연방제의 선결조건을 요구함으로써 상대방의 실체에 대해 부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사실상 남조선혁명을 의미하는 남한 내 인민민주주의 정권수립과 함께 국가보안법 철폐, 주한 미군 철수 등을 연방제의 선결조건으로 요구하는 것은 상대방의 실체를 부정하는 것으로서, 양측의 현실을 인정한다는 남북기본합의서의 기본 취지에도 맞지 않는 일이다.

둘째, 선결조건과 연방구성 원칙 사이에 논리적 일관성이 결여되어 있다. 선결조건에서는 상대방의 이념과 체제를 부정하면서도 연방제의 구성 원칙에서는 남북의 사상·제도의 차이를 상호 인정하는 기초 위에서 하나의 연방국가를 형성하자고 주장하는 모순을 드러내고 있다. 또한, “사상과 제도의 차이를 상호 인정한다”는 연방제의 구성원칙도 우리 측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연방제의 ‘선결조건’이 충족된 상태인 남쪽의 인민민주주의와 북쪽의 사회주의 체제를 상호 인정하는 것임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3) 남한의 통일방안과 대북정책

가) 이명박 정부의 통일노력 : 상생과 공영정책

이명박 정부는 2008년 2월 출범 초기부터 약 5년 동안 북한의 핵 실험과 대남 군사적 도발로 인하여 군사적 긴장이 조성된 가운데 대북 통일정책을 힘들게 이어왔다. 정권 출범 시 대북 정책으로 "상생과 공영"을 정책 목표로 <비핵, 개방 3000>정책을 제시 했지만 북한은 이를 전면 부정하고 대결과 긴장 조성으로 정책수행이 원활하지 못하였다.

즉 북한이 핵을 폐기하는 과정에서 북한 개방을 지원하고 국제사회와의 협조를 통해 경제 교육 인프라 재정 생활향상 등 5대 프로젝트를 추진함으로써 10년 이내에 북한 주민 1인당 소득이 3000불 수준으로 향상 되도록 지원하기로 계획한 것이었다.

나) 박근혜 정부의 통일 노력 : 한반도 신뢰프로세스(Korea Trust Process)

박근혜 정부는 출범 이전부터 당면 국제정세 변화의 추세와 북한의 대남 전략 등을 고려하여 '신뢰'를 새로운 대내외정책 패러다임으로 제시해 왔다. 모든 상황을 재점검하고 주변 정세와 남북문제를 올바로 풀어나갈 수 있는 신중한 걸음으로 신뢰에 기초한 대북정책 즉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제시한 것이다.

북한의 올바른 선택을 유도하고 남북간 공동발전을 구현하는 방향으로 대북정책을 지속적으로 보완·발전시켜 한반도 상황을 능동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국제사회와의 긴밀한 협의와 대북공조를 통해 북핵 포기와 한반도 안보위기를 해결해 나가고, 동북아 평화협력관계를 증진하여 갈등과 대결의 악순환을 끊고 선순환을 추구해 나가자는 것이다.

다) 문재인 정부의 통일 노력 : 평화공존과 공동번영의 한반도정책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정책은 국정지표인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를 토대로 하고 있으며 이를 실현하기 위한 2대 비전, 3대 목표, 4대 전략, 5대 원칙의 체계로 구성되어 있다.

첫째, 2대 비전은 평화공존과 공동번영이다.

둘째, 3대 목표는 북핵문제 해결 및 항구적 평화 정착, 지속가능한 남북관계 발전, 한반도 신경제공동체 구현으로 설정하였다.

셋째, 4대 전략으로는 단계적 포괄적 접근, 남북관계 핵문제 병행 진전, 제도화를 통한 지속가능성 확보, 호혜적 협력을 통한 평화적 통일기반 조성이며 이는 각 각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 방법이다.

넷째, 5대 원칙은 우리 주도의 한반도 문제 해결, 강한 안보를 통한 평화 유지, 상호존중의 관계에 기초한 남북관계 발전, 국민과 소통하는 합의 중시,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통한 정책 추진으로 대북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견지해야 할 기본원칙을 제시한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이러한 대북정책 기조에 따라 2018년 세 차례 남북정상회담, 두 차례 미북정상회담이 이루어질 수 있었으며, 2018년 남북정상회담에서 합의한 판문점선언과 9월 평양공동선언, 9.19군사합의를 이행하기 위한 군사실무접촉('19.1.30), 도로실무접촉('19.1.31), 철도도로자료교환('19.2.25) 등이 이루어졌다.

6. 종합결론 (총평)

1) 역대 남북한 정부의 통일정책 기조

가) 북한의 대남전략(통일정책) 기조

북한의 대남전략 목표는 북한체제의 최고 규범인 노동당 규약 전문에 다음과 같이 명문화 되어 있다. "조선로동당은 남조선에서 미 제국주의 침략군대를 몰아내고 식민지 통치를 청산하며 남조선 인민들의 사회민주화와 생존권 투쟁을 적극 지원한다". "조선로동당의 당면 목적은 공화국 북반부에서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이룩하여 전국적 범위에서 민족해방과 인민민주주의 혁명과업을 완수하는 데 있으며 최종목적은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와 공산주의 사회를 건설하는 데 있다."

그러한 전략에 기초하여 남조선 혁명론과 '연방제 통일방안'은 1973년의 '고려연방제'를 거쳐 1980년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방안'으로 구체화 되었으며, 1980년대 말 이래로는 체제방어 논리에 입각한 '당국 간 대화와 통일전선 구축'을 통해 위기극복과 함께 적화통일 전략을 지속적으로 추구하면서 1991년 '1민족 1국가 2제도 2정부'에 기초한 연방제로 전환되었다.

나) 남한의 통일정책 기조

우리의 통일정책에서 견지해 온 일관된 기조는 ① 민주적 절차에 의한 평화적 통일, ② 민족성원 모두의 자유와 인권 및 민족의 번영이 보장되는 통일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그러나 통일에 대한 인식은 당위론적 차원에서 현실적 차원으로 변화되어 왔다. 이러한 변화는 '선 평화, 후 통일'의 정책기조를 수립한 1970년대를 분기점으로 북한체제의 존재에 관한 현실 인정 및 대화상대 인정여부에 기초해서 나타났다.

특히 냉전 이후의 국제정세를 배경으로 하여 1989년에 「한민족공동체통일방안」과 1993년 이를 일부 수정하여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우리는 새로운 통일정책을 확립하게 되었다. 그리고 남과 북은 남북관계 좌표를 규정하는 「남북기본합의서」를 채택함으로써 남북관계 발전의 토대를 마련하였다.

2) 남북관계의 이중성과 특수성

남북 관계의 이중성이 나타나는 배경에는 다소 구조적이고 복잡한 요인들이 존재하고 있다.

첫째, 우리의 헌법 조항에서 남북관계의 성격을 유추할 수 있다. 우리의 헌법에서 이른바 영토조항이라 불리는 헌법 규정(제 3조)은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 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는 점을 확실히 하고 있다.

둘째, 남북관계는 국가 간 관계와 민족 내부 관계라는 두 가지 성격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 남한과 북한은 1991년에 유엔에 동시 가입해 국제사회로부터 주권을 가진 국가로 인정받았다. 이는 국제법적으로 한반도에 두 개의 국가가 존재하는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남북한이 1991년에 합의된 남북기본합의서는 남북 관계를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 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관계”로 규정하였다. 또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관계”임을 재차 확인했다.

결론적으로 남북관계의 특수성과 이중성은 북한이 우리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존재이면서도 민족공동체를 형성할 동반자로서 이해하고, 이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가 중요한 과제로 인식해야 할 것이다.

※ 본고는 민족통일협의회 40년사(2021.5월 발간) P.P. 390-412 게재원고를 압축한 관계로 문맥상 흐름에 불편이 있으시더라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회원 경조사

❖ 삼가 고인의 冥福을 빕니다.

신재표 운영위원 빙모 별세(7.7)	**최영일** 이사 별세(7.31)
최승호 운영위원 모친 별세(7.31)	**이수영** 운영위원 빙모 별세(8.13)

❖ 「회원 동정」게재 안내

「한국통일협회보」에는 회원님들의 동정 및 주소·전화번호 변동사항, 저술·수상·학위취득 사항, 세미나·포럼·강연회, 수필·시·사진 등을 게재하고 있습니다. 게재를 원하시는 분께서는 사무처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회원 경조사 연락 안내

회원님들의 가정에 경조사가 있을 시 소정의 경조금(화환)을 보내 드리고 있습니다.

* 자녀 결혼: 10만원 또는 花環, 본인 별세: 20만원(弔慰金 및 弔花),
부모·배우자 별세: 10만원 또는 弔花, 빙부모 별세: 협회 弔旗 비치

❖ 회비 납부 안내

우리 협회는 통일부 등 외부 기관단체의 일체 지원 없이 전적으로 자력에 의해 운영되고 있습니다. 회비는 회원 경조사 및 친목, 협회 운영 활성화 및 각종사업에 소중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금년도 年회비는 **회장 100만원, 부회장 50만원, 운영자문단 50만원, 이사 및 감사 30만원, 운영위원 15만원, 일반회원 5만원**입니다. 협회 정관(제6조)은 회원의 회비 납부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회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계좌번호 안내 ♥

○ 농 협	032-01-184133	사단법인 한국통일협회
○ 우 체 국	010041-01-044053	사단법인 한국통일협회
○ 우 리 은 행	1006-401-436662	사단법인 한국통일협회

회비 납부 현황(2021.1.1.~8.25)

직 책	회 비	납부 현황
고 문	임의	
명예회장	100만원	서극성(100)
회 장	100만원	정세현(100)
부회장	50만원	김방지(50), 전경만(50), 김형석(50), 홍양호(100), 고경빈(50), 김형기(50), 이관세(50), 권영경(50), 김중태(50)
운영자문단	50만원	김남식(30), 황부기(50)
이 사	30만원	박희봉(30), 김수일(45), 곽병채(30), 이용헌(30), 김충환(30), 김영도(30), 최영일(30), 정부락(30), 변만근(30), 조규봉(30), 임병철(30), 곽정탁(30), 이준우(30)
감 사	30만원	이강락(30), 장상호(30)
운영위원	15만원	김영상(15), 진준남(5), 한상학(15), 원기선(15), 황병일(5), 김용환(15), 우계근(5), 곽한근(15), 홍면기(10), 윤경태(5), 최문현(15), 김광회(5), 사순문(5), 권영범(15), 최수근(15), 김연철(15), 이정수(15), 김석진(15), 김선윤(15), 전홍기(15), 송길성(20), 문대근(15), 김의삼(10), 박경석(5), 천창기(5), 윤재훈(15), 박정열(10), 김한국(15), 한안석(15), 송병각(15), 전승호(10), 정대천(6), 장정자(15), 윤정원(15), 심용창(10), 신재표(15), 김창수(15), 이종렬(15), 황성호(15), 박 극(5), 양창석(15), 윤용범(15), 김용규(15), 서두현(15), 백원필(5), 김회동(15)
일반회원	5만원	권완규(5), 전윤태(5), 유후자(10), 김병옥(5), 임순희(10), 최우섭(5), 이문자(5), 이준학(5), 정세진(5), 이영국(5), 이규산(5), 정희자(5), 황의준(5), 정수영(5), 이학용(5), 권진호(5), 김명자(5), 박선미(5), 조순자(10), 김구용(5), 이동호(회)(5), 김순옥(10), 신영욱(5), 신광미(5), 이동우(5), 김병수(5), 이숙자(5), 김영남(5), 김은희(5)
준회원	2~ 50만원	
합 계		**103명 / 1,971만원**

*후원금 : 신일기업(서울사이버대)(3,000만원)

*사무실 구입기금 : 정세현(2,596,000원), 김방지(100만원), 조규봉(50만원), 김영구(50만원)

동호회 활동

계속되는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동호회 활동이 많이 위축되어 있습니다만, 회원님들께서 마음으로 늘 같이 하시고 자주 연락하심으로 돈독하고 우의 깊은 시간들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동호회 현황을 정리해서 알려드립니다.

동호회명	회장	모임/장소
산우회	김원호	매월 셋째 목요일
골프회	이재호	매월 첫째 화요일, 베어크리크컨트리클럽
기우회	김용재	매월 둘째 목요일, 한국기원(종로3가) 14:00
기독신우회	이정수	매월 넷째 주 금요일
들꽃모임	온경성	짝수 월(격월) 둘째 주 화요일
한마음봉사단	김명영	매월 첫 월요일 11시-14시 (강북구노인종합복지관)
七夕會	김영일	격월(홀수 월) 넷째 주 목요일
상록회	조영규	월 2회 짝수 주 토요일
초수회	임태순	매월 첫째주 수요일
白雲會	김석진	매분기 둘째달 셋째 화요일
통마회	김영남	매분기 마지막 달 둘째 화요일
두목회	김의삼	매월 둘째 주 목요일
이금회		격월(홀수 월) 둘째 주 금요일
통우회		수시
교육(주)		수시
통친회		격월

UCOK 마당

수 필

〈벤-허〉

김 진 구
(운영위원, 중국여행가)

매년 TV 크리스마스 특집으로 방영되곤 하는 名畵 <벤-허> — 대부분 찰턴 헤스턴 주연의 1959년판 영화로만 알고 계시겠지만, 원작은 미국 남북전쟁에도 참가했던 북군 장성 출신의 루 월리스가 1880년 발표한 소설 <벤허 - 그리스도 이야기>입니다. 잠시 벤허란 고유명사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참고로, 내용에 성경을 인용하지만 저는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벤허의 풀 네임은 유다 벤허 Judah Ben-Hur로, 여기서 히브리어 'Ben'(다비드 벤 구리온 前 이스라엘 수상의 '벤')은 영어의 from(son of), 독일어의 von(오토 폰 비스마르크), 네델란드어의 van(빈센트 반 고흐), 아랍어의 bin(오사마 빈 라덴), 프랑스어나 스페인어의 de(샤를 드 골, 잔 드 아르크 = 잔 다르크*)에 대응하는 단어로 '000의 아들' 또는 '000 집안(家) 출신'이라는 뜻, 곧 우리식 개념으로는 씨족명이나 성(姓) 앞에 붙는 전치사라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Judah Ben-Hur를 풀어쓰면 'Hur씨 집안의 Judah'가 됩니다(그렇다고 김해허씨와 혈연 관계는 아니겠지요).

Ben-Hur는 소설 작가가 제멋대로 갖다 붙인 성이 아니라, 성경에도 등장하는 뼈대(骨品)

있는 유대인 가문입니다. 구약 <열왕기上> 제4장 8절에,

"7. 솔로몬이 또 온 이스라엘에 열두 지방 관장을 두매 그 사람들이 왕과 왕실을 위하여 양식을 공급하되 각기 일 년에 한 달씩 양식을 공급하였으니
8. 그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에브라임 산지에는 벤훌이요
9. 마가스와 사알빔과 벧세메스와 엘론벧하난에는 벤데겔이요"로 기록되었는바, 영어 원문을 찾아 보면,

"7. Solomon had twelve district governors over all Israel, who supplied provisions for the king and the royal household. Each one had to provide supplies for one month in the year.
8. These are their names: Ben-Hur—in the hill country of Ephraim;
9. Ben-Deker—in Makaz, Shaalbim, Beth Shemesh and Elon Bethhanan;"이라고 확인 가능합니다.

물론, 소설 속의 유다 벤허는 가공 인물이지만, 실존하였던 귀족 벤허 가문의 후계자로 설정되어 로마인 멧살라에게 고난을 받고 뒤에 복수하는 내용으로 그려졌지요. 이처럼 서양 소설의 등장 인물은 성경에 근거를 둔 이름이 적지 않습니다(살펴보면, 일반인들의 이름도 그러합니다). 대표적으로 <모비 딕>(白鯨)의 주인공 이스마엘**과 에이허브(아합***) 선장을 들 수 있습니다. <모비 딕>의 첫머리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Call me Ishmael."
(나를 이스마엘이라고 불러다오.)

* 잔 다르크: (불어) Jeanne de Arc = Jeanne d'Arc 아르크의 잔, (영어) Joan of Arc 아크의 조안

** Ishmael: 아브라함의 장남(몸종 소생)으로 이삭(정실 소생, 유대인의 조상)의 이복형이자 아랍인의 조상, 문학 등에서는 '방랑자'를 상징

*** Ahab: 고대 北이스라엘 왕국의 폭군

漢文先生님이 주신 所重한 글귀

김 회 동
(운영위원)

나는 경북 안동시 길안면 송사리 두매 산골에서 태어나 초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전깃불을 보지 못했고 기차도 버스도 보지 못하고 자랐다. 그러나 동리전체가 나의 놀이터였고 자연과 산천을 벗 삼아 타잔처럼 어린 시절을 보냈다.

그런 환경에서 자란 나는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도시에 있는 안동사범 병설중학교에 진학했다.

일주일에 한번 있었던 한문시간이 생각난다. '유동수' 한문선생님은 마치 시골 할아버지 같아 우리는 "할배선생님" 이라 불렀다.

첫 수업을 시작한 선생님은 출석을 부르신 후 학생들을 한번 둘러보신고 "시골 촌에서 온 학생은 손들어 봐!" 하셨다. 그리고는 흑판에

南兒立志出鄕關 (남아가 뜻을 품고 고향을 떠났으면)
學若不成死不還 (그 뜻을 이루기 전에는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는다.)

라고 쓰셨다. 이 글귀는 일본인 석월성(1817~1856) 이라는 禪師가 한 말을 한문 선생님이 인용한 것으로 생각되나, 시골에서 자라 도시로 나가 공부하던 나는 이 글귀를 보는 순간 소중한 座右銘으로 받아들이게 되었다. 이 문구를 책속 표지나 책상머리에 써 붙여 놓고 자주 보며 그 뜻을 마음에 새겼다.

내가 시골에서 안동으로 공부하러 나온 것이 이 글귀가 의미하는 것과는 다소 거리가 있지만, 초등학교를 갓 졸업하고 부모님 膝下를 떠나 낯선 타향 안동으로 나온 어린 나에게는 出鄕關이나 다름없었기 때문이다.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린 시절부터 꿈을 세우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하여 노력 하지만 그대로 성공하는 사람보다 예기치 못한 계기로 인생의 방향이 달라지는 경우가 많다.

마치 사춘기 시절의 바램과는 달리 천생연분의 配匹은 따로 있는 것과 같다고나 할까...
그러나저러나 세운 목표의 달성을 위하여 나는 소중한 교육과정을 거치면서 자랐다.

인생에 있어 첫 교육은 어린 시절 밥상머리에서 이루어지는 가정교육이다. 가정교육은 마치 어린 묘목이 잘 크도록 돌보아주는 것과 같다. 여러 면에서 부모님의 관심과 사랑으로 이루어지는 교육이다. 기초가 튼튼해야 장래가 보장되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이루어지는 교육은 학교교육이다. 학교교육은 선생님으로부터 전문지식을 지도받고 거기에 자기의 노력이 더하여 그 분야에 걸출한 인물로 자라나는 매우 주요한 교육과정이며 이 교육에 따라 개인의 성패가 좌우되는 경우가 많다.

漢文先生님이 주신 南兒立志出鄕關은 학교교육을 잘 받도록 우리에게 動機를 부여해준 주요한 글귀였다.

학교교육을 마치고 사회로 진출하면 그때부터 사회교육이 시작된다. 사회교육은 지도를 맡은 선생님도 없고 교실도 없지만 아주 매서운 교육이라고 생각한다.

이 교육은 가정교육과 학교교육을 바탕으로 이루어지며 사람에 따라 쉽기도 하고 어려울 수도 있다.

南兒立志出鄕關한 나는 공군사관학교에 진학하였고 졸업 후 빨간마후라 즉 공군장교로서 조국의 영공을 지키는 전투기 조종사가 되었다.

士官生徒시절부터 장교생활을 하는 동안 나의 가슴에 새긴 좌우명은 "국가에 충성하고 민족을 사랑하며 불의를 모르고 정의에 사는 멋진 빨간마후라가 되자" 였다.

한문선생님이 주신 좌우명에 더하여 나의 포부가 담긴 좌우명이라 하겠다.

나는 여기에 맞춰 내 꿈을 이루기 위하여 생활 전반을 건전하게 실천하며 살았다.

나는 오늘도 南兒立志出鄕關의 뜻을 새기며 前進하고 있다.

그러나 생각해 보면 소중한 좌우명을 가슴에 품고 성공을 위하여 일생을 바친 노력이 있었지만 가슴 한구석에는 채워지지 않은 空虛한 空間이 있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

여전히 갈망이 있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 그것은 아무리 채워도 채워지지 않은 인간의 욕심 때문일까?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할 것은 갈망이 있어야 성공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채워지지 않은 갈망을 해결한 '이어령'교수의 告白을 들어보자.

"나는 목마름으로 여러 우물을 팠으며 팔 때 마다 샘물이 솟아났지만, 그래도 갈증은 해갈되지 않았다. 나의갈망이 해결된 것은 주님을 영접하고서야 비로소 모든 갈망이 해결되

었다"라고 고백했다. 이어령 교수는 자기의 갈망이 예수님을 만나는 도구로 사용되는 은혜를 입어 갈망이 해결된 것이다.

성경말씀을 보면,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하였다. (요한복음 4:14)

인간은 마치 촛불이 꺼질 때 한번 환하게 타오르듯이 갈망을 가진 자는 한번은 기쁨을 맛볼 때가 있다.

이 글은 중학교 시절 한문선생님의 첫 수업을 추억하는 글로써 그 곳에서 참 교육을 받은 나는 남다른 선비정신과 문화를 간직하고 있다. 나는 나이가든 지금도 自尊하며, 학창시절에 꿈꿨던 소망과 명예 그리고 문화를 지켜 조국과 사회에 이바지하려 노력하고 있다. 세월이 흐른 오늘 만일 내가 한문선생님 자리에 선다면 꿈 많은 어린 학생들에게 무슨 말을 해줄까? 아마도 다음과 같은 말을 할 것이다. '너의 꿈과 所望을 믿음으로 준비하면 믿음대로 되리라!' 라고 할 것 같다.

2021년 8월 寓居에서

順天사람(3)

최 승 호
(운영위원)

중국고전인 “중용”은 공자님의 친손인 子思가 쓴 서책으로 도덕철학을 담고 있는 명저입니다. 이 책은 심오하고 난해한 서책이지만 이를 독파하고 난 후에는 인식의 지평과 정신세계가 확장된 느낌을 경험할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과 역경에서 神을 찾는 것은 神이 현안문제의 해결사라고 想定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子思는 “중용”에서 지극한 정성이 신과 같다(‘至誠如神’)라고 하면서도 그 至誠도 오래도록 지속해야만 징험이 나타난다(久則證驗)라고 단서를 부여했습니다. 지난 호에서 언급한 건강律己(금주/금연)의 效驗도 나의 경험으론 정성스러움을 ‘오래도록’ 실천하였더니 나타났습니다.

사실 ‘至誠久則效驗’은 어찌 건강律己에만 적용되리오!

나의 의정부 녹양동 새집은 南向15층 아파트의 11층에 위치하고 있었고 전망도 좋아서 나는 ‘빈둥거리는 일상’을 경계하면서 그간 읽지 못한 서책들을 밤낮없이 독파했습니다. 특히 낮에 陽光이 비추는 아늑한 서재에서 아내가 가져온 따뜻한 커피나 율무차를 마시며 독서하는 즐거움과 기쁨은 나를 황홀케 했습니다. 참으로 천국은 하늘나라가 아니라 환경과 생각의 변화에서 오는 “지금 이곳”의 새 세상이고 새 길이었습니다. 그간의 습관화 된 생활도, 눈에 오래 익었던 사물도 ‘환경과 생각이 변화하면’ 천국의 열락으로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은 나의 새로운 발견이었습니다.

그러나 나에게는 수령연금이 적어 노후대책으로서 불완전하기 때문에 취업에 대한 遠慮가 없을 수 없었습니다. 동시에 인생후반의 권태[無爲]에 대한 대비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결핍과 권태[無爲]는 노년인생의 두 가지 큰 고통이다.

어떤 길을 선택할지 그리고 선택한 길을 어떻게 가야 할지를 정하는 것은 개인은 물론이고 기업과 국가의 승패와 생사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Peter Drucher (피터 드러커, 1909~2005,현대 경영학의 창시자)는 갈 길을 정하는 것은 전략이고,

어떻게 가야 하는 가를 정하는 것은 전술이라고 정의한 바 있으나, 나는 퇴직 후 인생 후반부에 대한 전략과 전술이 생각이 나지 않아 그저 매일 걱정만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사회적 話頭인 先行學習, 평생교육, 사회교육 등에 생각이 미치면서 취업 길은 "강단"취직이라고 생각하였고 그 방편으로 "한문과 한자"과목을 택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과목은 본시 중요하지만 시대상황으로 정부와 학생과 일반인들이 소홀히 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한자와 한문 공부의 필요성에 대한 立論을 위해 나의 사색과 다른 사람의 高見을 기록할 노트를 준비했습니다. 이 노트는 내 취직을 좌지우지 할 권력자와 대화하고 그를 설득할 무기고였습니다. 그리고 그 노트의 첫 페이지에 다음의 글을 적었습니다.

"미국 국방성은 중동전 참전을 계기로 종래 강조했던 戰士의 능력에 새로운 요소를 첨가했다. 그것은 현지 언어와 문자해독 및 활용능력이다. 우리나라의 운명 특히 안보와 통일이란 과제상황에 직, 간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인접 강대국(중국 일본)의 언어와 문자해독 및 활용 능력을 갖는 것은 바로 안보능력 그 자체이다. 그런데 한자는 이 두 나라의 상용문자다."

그리고 중국의 한문고전을 읽으면서 공자님이 비유하신 대로 나의 漢學水準이 마당인가 뜰인가 아니면 마루(堂)인가 방(室)인가를 생각하면서 나 자신을 검열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昇堂未入室"이라고 自評했습니다. 그러면서 入室이 수강생들의 실생활과 유리된 정치하고 오묘한 전문적(더러는 衒學的인) 境地라면 다른 중요한 공부도 많은데 그것에 개의치 않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당시 판단은 잘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 한문고전의 난해는 문장 측면에서는 맥락적 이해를 해야 할 省文(생문)이고, 문자 측면에서는 같은 한자의 여러 모양인 異體同字사용과 誤字사용및 通用字(代用字)사용입니다. 예컨대 "논어"에서 昇 대신 통용자 升을 사용하였는데 新中國은 升을 아애 간체자(新중국의 正字)로 채용하였습니다. 반면에 한국/일본은 昇을 正字로 사용하고 있음.

그런데 나에겐 하나의 큰 과제상황이 있었는데 전율을 느끼는 사회변화의 급변에 적응하기 위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컴퓨터 조작과 워드프로세스 작업, Excel(데이터處理 프로그람)작업, capture작업 및 scanning작업 능력의 습득과 향상이었습니다. 정보사회화의 추세에 免面墻(준말: 免墻/면장)을 하지 못하면 어떤 일도 하지 못할 것 같은 위기의식이 지속적으로 발동하여 나를 압박하였습니다.

그래서 나는 녹양동 길에서 만나는 중, 고등학생들을 붙잡아 不恥下問의 정신으로 컴퓨터를 주제로 여러 이야기를 나누어 얻은 메모지식과 PC관련 서책에서 얻은 독학지식

을 지속적으로 내 것으로 소화하여 축적했습니다. 어느 날은 이런 바탕으로 나의 컴퓨터 조작과 워드프로세스 작업 능력이 일취월장으로 향상되었다는 느낌을 가지게 되었고 그래서 家刻本을 제작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를 시험코자 우선 종이상자에 넣어 둔 많은 斷想메모들을 며칠 간 컴퓨터에 입력을 하고 있던 어느 날 갑자기 입력창의 페이지 번호가 없어지고 字間과 行間이 들쑥날쑥한 상태로 되는 등 이상한 현상을 목격했습니다. 너무 놀라 구원투수를 찾아 나섰습니다. 그러나 해결사를 만나자 못하여 오후 중학교 하교시간을 기다려 속칭 이름난 컴박사를 대면했는데 그는 바로 옆 棟의 중학생이었습니다.

"人生到處有上手(인생도처유상수)"

그 중학생님은 나에게 다음과 같이 자상하게 설명했습니다,

"문서작업을 하다가 이런 일이 있으면 "한글과 컴퓨터" 기본설정을 해야 해요, 먼저 자판기나 바탕화면의 시작을 click하세요. 다음에는 바탕화면 왼쪽에 나타난 프로그램 창에 마우스를 두고 밑으로 scroll하면 '한글과 컴퓨터'라는 이름이 나오고 그것을 click하면 '한컴기본설정'이란 이름이 나오고 그것을 클릭하면 '확인' 창이 나오니 그 때 확인을 click하면 되요."

나는 컴퓨터를 구입할 때 설정되었던 '기본설정'이 사용 중에 왜 풀어져서 이용자를 애태우게 하는가?를 생각하다가 萬事의 출발인 '기본'이란 말이 컴퓨터에도 있다는 사실, 그리고 설사 기본설정이 풀어졌다 해도 다시 復元할 수 있다는 사실이 갖는 철학적 의미를 깊이 생각했습니다.

실수는 우리 모두가 다 하지만 聖賢은 그 실수(過)를 나무라지 않고 그것을 그치지 않는 것(不止)을 책망했는데 그것은 그침(止)이 바로 정상"復元"의 출발이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不止過하면 百年貪物(탐물)도 一朝塵
止過하여 一日修心하면 千載寶 * 載=年

나는 동양고전 공부에서 깨우친 '止哲學'을 후일 중,고등, 대학, 전방부대, 문화원, 복지관의 교단에서 강조하고 또 강조했습니다. 실수와 그 실수의 다과를 의식하기 보다는 그것을 그치는(止) 결단의 위대성은 生死의 기로에서도 입증됩니다.

최근에 있었던 서울과 부산의 보궐 선거는 有爲한 人才들이 '止철학'을 실천하지 못

한 아쉬움에 대한 경종이었습니다.

人心唯危(인심유위: 民心은 오직 엄정하고 두려울 뿐이다)
How sad ! How sad!

나를 포함하여 많은 인생들은 고통과 自歎의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들의 素因的 요인과 促進的 요인을 살펴보면 얄궂은 운명의 장난에 희생된 경우도 있겠지만 많은 경우는 잠시도 잊지 말아야 할 "자각적인 자기관리"문제에 귀착된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자각적인 자기관리"의 출발은 樂(락 : 즐거움)의 관리입니다. 지혜 있는 사람들은 즐거움(樂)이 괴로움(苦)의 일종이며, 苦의 반대말은 樂이 아니라 마음의 평화(고요함)다. 라는 차원 높은 통찰력을 갖고 樂을 관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樂에도 그침(止)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맹자님은 인생경험과 역사적 사실을 종합하여 불후의 4자 2행의 古體詩를 "孟子"에 남겨 爲政者의 각성을 촉구하고, 삶에 지친 우리를 위무하고 깨우치고 있습니다.

生於憂患(생어우환)
死於安樂(사어안락)
근심과 걱정은 사람을 살아나게 하고
Life springs from sorrow and calamity
안일한 쾌락은 사람을 죽게 하는구나.
Death from ease and pleasure.

나는 순탄한 컴퓨터 문서작업에 도움을 준 그 고마운 중학생을 내차에 태워 시내 중앙로 있는 "지동관"(중화요리식당)으로 가서 식사를 대접했는데 해를 넘겨 내가 녹양동 주민 센터의 한자 선생님이 되고 한자교실의 수강생이 초등학생에서 모든 연령층으로 확대될 때 그는 잠시 나의 한자교실에서 어린 동생들과 함께 한자를 공부했습니다.

의정부시 녹양동은 양주시 유양리 및 경원선 주내역과 접하고 있는바, 이곳은 나가 전방에서 군복무 할 때 왕래하면서 자주 지나쳤기 때문에 地理는 낯설지 않고 친근감을 느끼게 했습니다.

그러나 대대로 살아오신 토착주민과 세상변화로 이주해 온 분들이 함께 지역사회를 구성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의바른 행동에 신경을 쓰며 如履薄氷(여리박빙 : 겨울에 사르르 언 얼음을 밟듯이)의 조심스런 언행으로 삶을 살았습니다.

어느 날은 지역사회를 알고 지역민들과 유대를 갖고 싶은 상념이 발동하여 동장님에게 소회를 말씀드렸더니 "녹양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으로 일하게 했습니다. 녹양동에서 洞선관위원장이 된 후 곧 지방선거가 있어 민주주의의 뿌리인 지방자치의 한 단면을 현장 체험하는 기회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지방자치는 중앙정부로부터 상대적 자율성을 가진 지방정부가 지방사무를 처리하는 제도인데 1995년에 부활되었습니다.

이것은 주어와 서술어만으로 기술된 story-telling式(사건을 일련의 시간순서로 배열) 한국현대사의 전형적인 기술입니다.

그러나, 그동안 집권자들은 왜 한국 민주화의 상징인 지방자치를 두려워했는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나라의 민주화를 위해 희생 되었는가? 지방자치의 부활에 목숨을 건 단식투쟁을 감행한 사람은 누구이고 왜 그렇게 했었는가?를 언급한 副詞語가 있는 plot-telling式(사건의 발단, 갈등, 절정, 대단원의 因果관계를 기술) 한국현대사는 지금 없습니다.

사실 진정한 역사는 단선적이지 않고, 비약과 생략이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선후좌우가 있는 인간의 삶이며 현대와 연결됩니다. 그러므로 역사기술은 사건의 나열이 아니라 관점과 해석의 체계라고 생각합니다.

'통치권력'은 헌법과 법률에 의해 국민의 통제를 받지만 '권력자'을 諫爭하는 공적제도(司諫제도)는 없습니다. 이는 언필칭 사회목탁이라고 하는 민간 "언론"이 그 역할을 하도록 기대되었습니다. 그렇지만 한국 언론은 筆禍와 南山의 폭력과 공작에 대한 두려움으로 국민을 대신해서 정치의 도박장(the gambling den)을 관리하고 제한하는 "간쟁"기능을 포기하고, 오히려 권력과 유착하여 이권을 쫓는, 그러나 약자에게는 강력한 제4의 권력기관이 되었습니다. 한국 언론은 박정희와 전두환으로 이어지는 25년의 군부장기집권 기간 내내 통제된 상태였기 때문에 권력자들이 인권유린(Human Rights violations)으로 국민의 민주화 요구를 차단하고 있다는 엄연한 사실에 눈을 감고 운신을 조심하며 이를 방조하였습니다.

독일 히틀러정권은 한국의 박정희 유신정권(국회의원 1/3을 대통령이 선발하는 것이 가장 특징임)처럼 국민투표로 등장한 절차적 합법성을 갖는 총통제(대통령과 총리를 겸직하는 체제)였습니다. 독일 히틀러정권에 반기를 든 베르톨트 브레흐트(Bertolt Brecht,1898~1956, 독일詩人으로 한 때 미국에 망명함)는 詩題 "후손들에게"(To Posterity)를 발표하여 나치정권하의 독일현실을 비판했습니다. 이 詩의 일부 詩句는 마

치 한국 군부집권시대의 암울한 사회 분위기를 대변하는 듯합니다.

오 ! 이 무슨 시대란 말인가?
불의에 맞서는 일종의 침묵으로
나무에게 이야기 하는 것조차도
죄가 되다니.
Ah, What an age it is ?
When to speak of trees is almost a crime,
For it is a kind of silence against injustice.

한국은 그래도 담벼락에다 욕을 할 수는 있었기에 좀 더 나은 상황이었다고 할 수 있지만 오십보백보가 아닌가! 그래서 그 때는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이 살만한가? 자문했던 시절이었기에 어찌 언론자유가 존재할 수 있었겠는가? 드디어 한 시대가 권력중심부의 충돌로 종말을 告했습니다(79.10.26). 그러나 독재자가 유사시를 대비해 양성해 둔 군부세력이 등장하여 군사반란를 일으켜(79.12.12) 軍權을 장악하였습니다.

국가의 실권을 잡은 신군부는 정권탈취를 위해 80.5.17 쿠테타를 일으켜 계엄령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국회의사당을 강제 폐쇄하고 국회의 기능을 정지시켰습니다. 그들은 속칭 전두환 헌법을 국민투표를 거쳐 공포하였는데(80.10.27). 7년 단임의 대통령을 대통령선거인단(종래 대통령을 선출하던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체기구)이 선거하는 간선제를 채택하였고, 일말의 양심이 있어 국회의원을 대통령이 지명하던 唾棄할 조항을 삭제하였으며, 이 헌법의 부칙을 근거로 만든 국가보위입법회의가 국회기능의 입법권을 한시적으로 행사토록 하였습니다. 이후에 실시된 제11대(81.3.25) 및 제12대(85.2.12) 국회의원 선거에서 권력기관의 공작정치와 행정부의 선거개입은 여전했고, 언론의 자유는 유명무실했습니다. 그러나 국민의 강력한 저항으로 대통령 직선제 개헌이 성취되었고('87.10.29), 제도적 민주화는 많이 개선되었으나 현실 정치상황과 언론환경에 실망한 金大中은 한국 민주화의 희망을 "地方自治"에 걸고 그것의 부활을 위해 단식투쟁했던 것입니다.

그는 집권하자 전국에 초고속 인터넷망을 깔고 전 국민의 '정보화'교육으로 정보화 시대를 활짝 열었습니다. 그런데 인터넷망은 부수적인 효과로 기성언론의 대항마로서 기능을 하고 있고 상업언론의 정보독과점 및 왜곡보도를 완화시켜 이른바 한국 민주화의 안착과 발전을 도모하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근자에 한국의 국제적 위상에 대한 역사적인 이정표가 발표되었습니다. 그것은 국제사회가 공식적으로 한국을 '선진국'으로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선진국의 기준이 단순히 경제력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想起할 때 민주화를 위해 몸을 던진 수많은 민주인사들의 희생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고 작고하신 분들께 향불을 피우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방선거를 앞둔 어느 날 녹양동장으로 새로 부임한 姜行歡(강행환)동장님이 나를 만나고 싶다는 전갈을 보내 왔습니다. 찾아 간 나에게 修人事가 끝나자 다음과 같은 요지로 洞政의 포부를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洞에는 방과 후 사설학원에 다니지 못하는 초등학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주민 센터의 무료한자교실을 현직 시의원이 운영하고 있는데 경쟁후보자 측에서 문제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선생님께서 맡아서 운영하면 어떻겠습니까? 강사료는 시 예산으로 지급하며, 서점에 나와 있는 모든 종류의 한자교재들을 샘플 구매하여 교안 작성을 지원하겠습니다. 그리고 녹양동자치위원회 위원으로 들어와서 활동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나는 不敢請 固所願(불감청 고소원)의 제안을 듣는 순간 이것은 필시 '하늘의 말'(天語)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어찌 마음속의 宿願이 신임 동장님에게 전해졌다는 말인가?(지금도 의문이지만) 고독한 나에게 이런 歡喜奉行할 일이 또 있겠는가? 나는 동장님에게 정식으로 발령장을 만들어 달라고 이야기 하면서 "동장님을 존경합니다."라고 말하며 허리 굽혀 인사를 했습니다. 너무도 감격한 나머지 귀가하여 '뜬 눈으로 지새는 밤'을 경험했습니다.

Happier times are coming.

나는 어린이들이 "찾고 싶은 한자교실"을 만들기 위해 우선 어려운 한자공부에 흥미를 갖고 童心을 沒入토록하는 수업방안을 고심하는 한편, 외부에 내 놓아도 손색없는 교안 작성에 不眠不休의 며칠을 보내고 나서, 그간에 숙달된 컴퓨터와 워드프로세스 능력을 발휘하여 나만의 한자교재(家刻本)를 초고속으로 만들어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가끔 공자님이 말씀하신 '下學而上達'의 길을 절제와 인내 속에서 걷고 있는 나를 가만히 손잡아 주는 神의 引導에 감사했습니다. 끝

두 분의 선배님을 추모합니다.

김 영 도
(사무총장)

지난 6월과 7월, 우리 협회의 정하웅 전 부회장님과 최영일 이사님이 우리 곁을 떠나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셨습니다.

작고하신 모든 통일동우님들의 영전에 옷깃을 여미는 엄숙함을 느끼며 추모 드립니다만, 특히 두 분은 우리 협회의 발전을 위해 많은 시간동안 시간과 열정을 드려 헌신해 오신 분들이셔서 저로서는 많은 추억을 새기며 추모 드리게 됩니다.

회원님들이 모두 잘 아시는대로 정하웅 부회장님은 통일동우회 출범시 고 장진문 사무처장님의 후임으로 통일동우회 업무를 맡으셔서 오랜 기간 수고하시고, 저희 협회의 출범시 산파와 밑거름의 역할을 하신 분이십니다. 평소 협회에 대하여 남다른 애정을 가지시고 여러 가지 일을 적극 지원해주시고, 애정어린 조언과 자문을 해주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각종 동호회 모임을 이끄시면서 적극 참여하시고 통일동우들과 소박하고 친밀한 관계를 유지해 오신 분이십니다. 항상 온화하시고 사려많으신 모습이 제 마음에 깊이 남아 있습니다.

최영일 이사님은 몸이 불편하심에도 불구하시고, 소천하시기 한달전까지도 협회 이사회 및 제1차 한백포럼에 참석하시는 등 협회에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헌신하신 분이십니다. 평소 이사님께서 관심가지고 다루어 오신 대북업무분야에 대한 정리된 내용을 저에게 전달해 주신 것이 소천하시기 한달전이었습니다. 항상 부드러운 미소로 살아오신 이사님의 모습이 눈에 선합니다.

이렇게 두 분을 추모하면서, 코로나로 인해 조문조차도 어려운 상황에서 두분의 가시는 길을 넉넉하게 배웅해드리지 못한 점이 송구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사무처의 일을 맡고 있는 사람으로서, 회장님과 여러 선배님, 동료분들을 잘 모시면서, 협회의 발전과 회원님들의 활동에 도움이 되어드리는 자가 되어야겠다고 다짐해봅니다.

회원님들 모두 건강하시어서 인생의 후반부를 더욱 힘차고 보람있게 보내시기를 기원드리오며,

다시 한번 삼가 두 분의 명복을 빕니다.

漢詩

休 戰 線 原 墓

(휴전선 들녘의 묘)

淇竹 金錫珍
(운영위원)

休戰線原蕪沒丘
휴 전 선 원 무 몰 구
휴전선 들녘 잡초 우거진 무덤에

弊穿鏽帽只孤留
폐 천 수 모 지 고 류
구멍 뚫린 녹슨 철모 하나
외롭게 있네

强兵氣勢一天域
강 병 기 세 일 천 역
강병의 기세는 온 하늘 녘에 미쳤었고

勇士威風千里區
용 사 위 풍 천 리 구
용사의 위풍은 천리강산
곳곳에 드날렸네

荒土骨身長死瘞
황 토 골 신 장 사 예
골신은 오랫동안 거칠은
땅에 죽어 묻어있고

野人魂魄尙生流
야 인 혼 백 상 생 류
혼백은 아직도 우리네 후세
사람들에 살아 흐르네

墓前護國英靈伏
묘 전 호 국 영 령 복
호국영령의 묘 앞에서 삼가
엎드려

衷盡佳薔數朶投
충 진 가 장 일 타 투
충심을 다하여 어여쁜 장미
몇 송이 올립니다

書畫

고성용
(서 화 가)

偷 閑

김동배
(서 화 가)

꽃과 동행

건강코너

코로나 시대, WHO가 제안한 새로운 '운동지침'

세계보건기구(WHO)가 코로나 시대에 맞는 새로운 신체활동 지침을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성인이라면 누구나 매주 150~300분의 중등도 유산소 운동 또는 75~100분의 격렬한 유산소 운동을 해야 한다. 만성질환자나 장애인도 포함된다.

WHO는 이전에 18~64세 건강한 성인만을 대상으로 매주 최소 150분의 중등도 운동이나 75분의 격렬한 운동을 권장해왔다.

새로운 지침에는 어린이나 청소년은 하루 평균 60분 이상 운동해야 하며, 65세 이상 어르신은 균형감각에 초점을 맞춘 운동을 추가로 시행하기를 권장했다.

건강상의 이점을 더 많이 얻기 위해서는 일주일에 최소 2번 이상 주요 근육을 모두 단련하는 근력운동을 중등도 혹은 격렬한 정도로 시도하라고도 했다.

WHO에 따르면 신체활동은 심장병, 당뇨병, 암뿐 아니라 우울증, 불안을 줄이고 기억력과 뇌 건강을 개선한다.

WHO 테드로스 아드하놈 게브레예수스 사무총장은 "지속적인 신체활동을 통해 수명을 수년 이상 늘릴 수 있다"며 "특히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모든 움직임이 중요하기 때문에 누구든 매일 움직여야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 신체적 활동은 단순히 스포츠나 레저활동뿐 아니라 밭에 물주기, 청소하기 등 가사를 통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많은 시간 앉아서 생활하는 사람은 신체 활동을 더 많이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출처: 헬스조선)

코로나19 심리방역을 위한 마음건강지침

자료: 대한신경정신의학회

1. 불안은 지극히 정상적인 감정입니다.
과도한 불안은 우리를 지나치게 예민하게 만들고, 몸과 마음을 소진시켜 면역력에 부정적인 스트레스를 줄 수 있습니다.

2. 정확한 정보를 필요한 만큼만 얻으세요.
불확실한 정보는 불안과 스트레스를 가중하고 이성적인 판단을 어렵게 합니다.
뉴스를 백번 본다고 내게 필요한 정보가 백번 얻어지지 않습니다.

3. 혐오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사람에 대한 혐오는 감염 위험이 있는 사람을 숨게 만들어 방역에 어려움을 겪게 합니다.
우리의 적은 감염병이지 병에 걸린 사람이 아닙니다.

4. 나의 감정과 몸의 반응을 알아차리세요.
전염병에 대한 어느 정도의 불안과 긴장은 타당한 반응이지만, 과도한 두려움이나 공포감에 압도되고 특히 불면증이 지속적으로 나타난다면 정신건강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5. 불확실함을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받아들이세요.
신종 전염병은 많은 것이 불확실할 수밖에 없습니다. 스스로 통제 가능한 활동으로 주의를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6. 가족과 친구, 동료와 소통을 지속하세요.
감염 위기 상황에서는 활동이 제한되기 때문에 외로움, 소외감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화상 전화, 메일 등을 이용해서 진심으로 마음을 주고받을 수 있는 사람들과 소통하세요.

7. 가치 있고 긍정적인 활동을 유지하세요.
긍정적 감정과 행동은 면역력 강화에 도움이 됩니다. 주위 사람을 돕는 것이 나를 돕는 것일 수 있습니다. 편지를 쓰거나 매일 일기나 기록을 남기는 것도 좋습니다.

8. 규칙적인 생활을 하세요.
일정한 시간에 식사를 하고, 가벼운 운동을 통해 활력을 유지하세요. 특히 일정한 시간에 잠을 자고 깨는 것이 정신건강을 지키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9. 주변에 아프고 취약한 분들에게 관심을 가져주세요.
코로나19는 치사율은 낮지만 고령자, 만성질환자, 장애인에겐 높은 위험을 보입니다.
주변 취약한 분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도와주십시오. 남을 돕는 이타적인 행동이 나의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10. 우리 서로를 응원해주세요.
모두가 힘든 시기를 이기는 힘은 사회적인 신뢰와 연대감입니다. 악플이나 댓글 대신 감사의 글과 응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세요.